

# ‘이다’의 不規則 活用に 對하여

任洪彬 \*

## 1. 머리말

本 發表는 韓國의 學校 文法에서 흔히 敍述格 助詞라고 하는 ‘이다’에 대하여 우선은 그 品詞가 助詞가 아니라 形容詞이며 그 活用이 다른 形容詞나 動詞에서 보이는 不規則 活用に 比較가 되지 않을 만큼 不規則한 것이어서 韓國語에 대한 正確한 理解와 運用 및 敎育을 위해서는 ‘이다’와 關聯한 活用을 不規則 活用으로 設定하여 徹底한 敎育의 對象으로 삼아야 할 것이 必要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다’의 性格 把握에 대해서는 韓國語 文法에서의 出發이 極히 不幸한 것이었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草創期에는 이른바 ‘이다’ 論爭이라 하여 그 性格 把握에 있어서 極甚한 混線을 빚었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指定詞(잡음씨)라고 하는 崔鉉培(1930, 1937=1959)의 立場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體言의 活用이라 하는 李熙昇(1949, 1950)이 立場이 맞서 지금까지도 公式的으로는 그것을 ‘敍述格 助詞’로 보는 立場이 學校 文法에서 採擇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다’를 指定詞라 하여 따로 세울 必要도 없는 것이며, 體言의 活用이라는 特異한 範疇를 設定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이다’는 形容詞로 보아 큰 題가 없는 것이다. 그 活用의 樣相이 形容詞와 대부분 一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過去에는 그 品詞 問題가 解決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特異한 活用이 미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다’의 活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特異한 것이다. 이를 익히는 일은 한국어의 다른 양상을 익히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 2. 不規則 活用과 非自動的 交替

### 2.1. 도입

여기서는 최현배 (1937=1959: 320-339, 501-511)에 제시된 불규칙 활용의 성격과 종류를 1985년 학교 문법에 반영된 제시된 불규칙 활용의 성격과 종류를 비교하여 최근에 불규칙 활용의 개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현배 (1937=1959: 320-339, 501-511)에서 불규칙 활용(“벗어난 끝바꿈[變格活用]”)은 움직씨(동사)나 그림씨(형용사)의 “끝바꿈법(활용법)”에 벗어난 끝바꿈을 하는 용언을 말한다. 불규칙 활용은 용언의 어간이 변하는 것과 어미가 변하는 것 그리고 어간과 어미가 함께 변하는 것의 3가지로 설정되었다. 동사의 불규칙 활용이 11종,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이 8종이나, 종류가 같은 것을 합치면 총 12종류의 불규칙 활용을 설정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1985년 학교 문법에서는 총 9종의 불규칙 활용이 설정되었다. 불규칙 활용의 개념이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 성격이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를 살피고 그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 2.2. 최현배 (1937)과 학교 문법의 불규칙 활용

최현배 (1937=1959: 320-339, 501-511)에서 불규칙 활용(“벗어난 끝바꿈[變格活用]”)은 움직씨(동사)나 그림씨(형용사)의 “끝바꿈법(활용법)”에 벗어난 끝바꿈을 하는 용언을 말한다. 불규칙 활용은 용언의 어간이 변하는 것과 어미가 변하는 것 그리고 어간과 어미가 함께 변하는 것의 3가지로 설정되었다. ‘이다’는 “잡음씨(지정사)”라 하여 동사, 형용사와 다른 제3의 용언으로 설정되었다. 동사의 불규칙 활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셋으로 나뉜다.

(1) 최현배 (1937=1959: 320-339)에서 동사의 불규칙 활용

가. 어간이 원칙에 벗어난 것

A. 어간의 끝소리가 줄어드는 것

(ㄱ) ‘르’ 벗어난 움직씨(르 變格動詞): 갈다 - 가니

\* 韓國 서울대 名譽敎授

- (ㄴ) ‘ㅅ’ 벗어난 움직임 (ㄴ 變格動詞) : 잇다 - 이으니  
 (ㄷ) ‘으’ 벗어난 움직임 (ㄷ 變格動詞) : 따르다 - 따라  
 (ㄹ) ‘우’ 벗어난 움직임 (ㄹ 變格動詞) : 푸다 - 퍼
- B. 어간의 끝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것  
 (ㄱ) ‘ㄷ’ 벗어난 움직임 (ㄷ 變格動詞) : 듣다 - 들어  
 (ㄴ) ‘ㅂ’ 벗어난 움직임 (ㄴ 變格動詞) : 굽다 - 구워
- 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난 것  
 (ㄱ) ‘여’ 벗어난 움직임 (여 變格動詞) : 하다 - 하여  
 (ㅇ) ‘리’ 벗어난 움직임 (여 變格動詞) : 이르다 - 이르러  
 (ㅈ) ‘거라’ 벗어난 움직임 (거라 變格動詞) : 가다 - 가거라  
 (ㅊ) ‘너라’ 벗어난 움직임 (너라 變格動詞) : 오다 - 오너라
- 다. 어간과 어미가 함께 원칙에 벗어난 것  
 (ㅋ) ‘르’ 벗어난 움직임 (르 變格動詞) : 흐르다 - 흘러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은 (1)과 흡사하지만 종류에도 차이가 있고, 수에서도 차이가 있다.

- (2) 최현배 (1937=1959: 501-511)에서 형용사의 불규칙 활용  
 가. 어간이 원칙에 벗어난 것  
 A. 어간의 끝소리가 줄어드는 것  
 (ㄱ) ‘ㄷ’ 벗어난 그림씨 (ㄷ 變格形容詞) : 길다 - 기니  
 (ㄴ) ‘ㅅ’ 벗어난 그림씨 (ㅅ 變格形容詞) : 낫다 - 나오니  
 (ㄷ) ‘ㅎ’ 벗어난 그림씨 (ㅎ 變格形容詞) : 빨강다 - 빨가니  
 (ㄹ) ‘으’ 벗어난 그림씨 (우 變格形容詞) : 아프다 - 아파
- B. 어간의 끝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것  
 (ㄱ) ‘ㅂ’ 벗어난 그림씨 (ㅂ 變格形容詞) : 덥다 - 더워
- 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난 것  
 (ㄴ) ‘여’ 벗어난 그림씨 (여 變格形容詞) : 착하다 - 착하여  
 (ㄱ) ‘리’ 벗어난 그림씨 (여 變格形容詞) : 푸르다 - 푸르러
- 다. 어간과 어미가 함께 원칙에 벗어난 것  
 (ㅇ) ‘르’ 벗어난 그림씨 (르 變格形容詞) : 이르다 - 일러[무]

최현배(1937=1959)에서(1), (2)와 같은 불규칙 활용을 상정한 것은 매우 간단한 원리에 의한 것이다. 어간이 변하는가, 어미가 변하는가, 어간과 어미가 함께 변하는가 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지 않는 것이 정격(正格)이 된다.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지 않는 것이 규칙적인 것이다. (1)과 (2)에서 ‘원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음운 법칙이 아니라 일반적인 활용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정격’을 ‘규칙’, ‘변격’을 ‘불규칙’이란 술어로 바꾸기로 한다.

- (3) 최현배(1937=1959)에서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최현배(1937=1959)에서의 규칙 활용은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지 않는 것이며,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나 어미가 변하는 것이다.

(3)에 포함되지 않은 것의 하나는 ‘먹는다→멍는다’와 같은 변화이다. ‘먹’의 받침 ‘ㄱ’이 ‘ㄴ’과 같은 비음(鼻音)으로 시작되는 말 앞에서 ‘ㅇ’으로 변하는 현상과 같은 것이 지적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용언의 활용에서뿐 아니라 ‘학늬, 사각문’과 같은 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음운 교체의 종류가 나뉘게 되었다. Hockett(1958)의 ‘자동적 교체(Automatic Alternation)’와 ‘비자동적 교체(Non-automatic alternation)’ 가운데, 불규칙 활용은 비자동적 교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게 되었다.

그 결과 1985년 학교 문법에서는 불규칙 활용이 다음과 같이 상정되게 되었다.

- (4) 학교 문법의 불규칙 활용  
 가. 어간의 불규칙 활용  
 (ㄱ) ‘ㅅ’ 불규칙 활용 : 짓다 - 지으니  
 (ㄴ) ‘ㄷ’ 불규칙 활용 : 듣다 - 들어  
 (ㄷ) ‘ㅂ’ 불규칙 활용 : 덥다 - 도와  
 (ㄹ) ‘르’ 불규칙 활용 : 흐르다 - 흘러
- 나. 어미의 불규칙 활용

- (口) '여' 불규칙 활용 : 하다 - 하여(해)
- (ㅂ) '러' 불규칙 활용 : 이르다 - 이르러
- (ㅅ) '거라' 불규칙 활용 : 가다 - 가거라
- (ㅇ) '너라' 불규칙 활용 : 오다 - 오너라
- 다.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 활용
  - (ㅈ) 'ㅎ' 불규칙 활용 : 하얏다 - 하야니, 하얀, 하애.

(1), (2)와 (4)를 비교하면 우선 눈에 띄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차이이다.

(5) 1985년 학교 문법에서 달라진 것

- 가. 'ㄹ' 불규칙 활용을 규칙적인 것으로 보아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하였다.
- 나. '으' 불규칙 활용을 규칙적인 것으로 보아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하였다.
- 다. 'ㄹ' 불규칙 활용은 (1다ㄱ)과 (2다ㅇ)에서 어간과 어미가 함께 변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4다ㅈ)에서는 어간의 불규칙으로 바뀌었다.
- 라. 'ㅎ' 불규칙 활용이 (2가Aㄷ)에서는 어간의 끝소리가 줄어드는 것이었으나, (4다ㅈ)에서는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처리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3. 'ㄹ' 불규칙 활용의 문제

(5가, 나)는 '불규칙 활용'에서 '불규칙'의 개념을 잘못 적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위에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1985년 학교 문법은 '불규칙 활용'을 비자동적 교체의 개념과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비자동적 교체가 바로 불규칙 활용이 되고 자동적 교체가 바로 규칙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적 교체라도 불규칙 활용에 속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활용과 그 성격이 같은 것을 말한다. 그것은 어간이 그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며 어미가 일반적인 어미를 취하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6) 규칙 활용의 성격

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활용과 그 성격이 같은 것을 말한다. 그것은 어간이 그 활용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며 어미가 일반적인 어미를 취하는 것이다.

(5가)에 의하여 'ㄹ' 불규칙 활용은 없어지고 'ㄹ' 탈락 현상이 되었으나, 이를 (6)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활용에서는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가 떨어지지 않는데, 'ㄹ' 받침을 가진 용언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으' 불규칙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용언은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지 않는데, '아프다'와 같이 어간이 '으'로 끝나는 용언만이 '으' 모음이 탈락되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7) 가. [규칙 활용의 예] 갓다 [報] : 갓고, 갓아서, 갓자, 갓아라, 갓게, 갓거나, 갓았다; 갓는다, 갓으니, 갓으시오, 갓습니다, 갓으오, 갓으옵니다, 갓으소서, 갓은, 갓을, 갓음.
- 나. ['ㄹ' 불규칙 활용의 예] 팔다 [賣] : 팔고, 팔아서, 팔자, 팔아라, 팔았다, 팔게, 팔거나; 판다, 파니, 파시오, 팝니다, 파오, 파옵니다, 파소서, 파는, 판, 팔, 팝[팸].

(7가)는 어간에 받침을 가진 다른 일반적인 용언의 활용 예를 보인 것이며, (7나)는 'ㄹ' 불규칙 활용을 하는 '팔다'의 예를 보인 것이다. '갓-'의 어간 말 자음 'ㄹ'은 어느 경우에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 따라서 그것은 규칙 활용을 하는 것이 된다. 그것이 한국어 활용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에 대해서 (7나)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팔다'의 예를 보인 것이다. '팔고, 팔아서, 팔자, 팔아라, 팔았다, 팔게, 팔거나'에서와 달리, '판다, 파니, 파시오, 팝니다, 파오, 파오니, 파옵니다, 파소서, 파는, 판, 팔, 팝[팸]'에서는 'ㄹ'이 탈락한다. 조음소 '으'를 가지는 어미 '-ㄴ, -ㄹ, -ㅁ, -니'의 앞, 선어말 어미 '-느-, -시-, -오-, -ㅂ(-ㅂ니다/ㅂ니까)'의 앞, 그리고 어미 '-오, -소서' 등의 앞에서 'ㄹ'이 탈락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8) 'ㄹ' 탈락의 조건

- 가. 조음소 '으'를 가지는 어미 '-ㄴ, -ㄹ, -ㅁ, -니' 등의 앞.
- 나. 조음소 '으'를 가지는 선어말 어미 '-시-, -오-, -ㅂ(-ㅂ니다/ㅂ니까)' 및 '-느-' 등의 앞.
- 다. 조음소 '으'를 가지는 어미 '-오, -소서' 등의 앞.

(8가-다)는 전체적으로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를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조음소 '으'를 가

진 말 앞에서 어간의 ‘ㄱ’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8나)의 ‘-느-’는 조음소 ‘ㅇ’를 필요로 하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ㄱ’탈락을 전부 음운론적으로 조건된 교체라고만 볼 수 없다. ‘ㄱ’탈락의 조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적인 이유에서라도 이는 불규칙 활용에 포함시켜 각별한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ㄱ’탈락을 규칙 활용으로 보는 이유는 ‘ㄱ’받침을 가진 모든 용언이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ㄱ’받침을 가진 용언들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는 것이다. 어떤 활용이 규칙인가 불규칙인가 하는 것은 다른 용언을 고려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6)에서 ‘규칙 활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활용과 그 성격이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ㄱ’받침을 가진 모든 용언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ㄱ’받침을 가진 용언들만을 대상으로 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규칙이 되는가 불규칙이 되는가는 다른 용언과의 비교를 통해서이다. 다른 용언이 같은 양상을 보이면 규칙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규칙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용언에서는 어간의 받침이, 조음소 ‘ㅇ’를 가지는 어미 ‘-ㄴ-, -ㄹ-, -ㄷ-, -나-, -니’의 앞, 선어말 어미 ‘-느-, -시-, -오-, -ㅁ-(ㅁ니다/ㅁ니까)’의 앞, 그리고 어미 ‘-오-, -소서’ 등의 앞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ㄱ’을 받침으로 가진 용언에서는 탈락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ㄱ’탈락은 규칙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다른 일반적인 용언이 보이는 양상과 다른 것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당연히 불규칙 용언에 포함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ㄱ’탈락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ㄱ’받침을 가진 어간이라도 ‘ㄷ’불규칙 활용에서 나타나는 어간 말 ‘ㄱ’은 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을 보기로 하자.

(9) ‘ㄷ’ 불규칙 활용의 예

가. 듣다[聞] : 듣는다, 듣고, 듣지, 듣게, 듣는구나; 들어, 들으니, 들으나, 들으면, 들어도, 들었다, 들었구나, 들은, 들을, 들음.

나. 걷다[步] : 걷는다, 걷고, 걷지, 걷게, 걷는구나, 걸겠다; 걸어, 걸으니, 걸으나, 걸으면, 걸어도, 걸었다, 걸었구나, 걸은, 걸을, 걸음.

(10) ‘ㄷ’ 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의 ‘ㄱ’ 받침

가. 어미 ‘-ㄴ-, -ㄹ-, -ㄷ-, -나-, -니’ 등의 앞 : 걸은, 걸을, 걸음, 걸으나, 걸으니.

나. 선어말 어미 ‘-시-, -오-, -ㅁ-(ㅁ니다/ㅁ니까)’ 및 ‘-느-’ 등의 앞 : 걸으십니다, 걸으시오,

거십니다/걸으십니다, \*걸으는다/\*걸는다.

다. 어미 ‘-오-, -소서’ 등의 앞 : 걸오오, 걸오소서.

(9가)는 ‘ㄷ’ 불규칙 활용의 예로 ‘듣다’의 활용을 보인 것이며, (9나)는 ‘걷다’의 활용을 보인 것이다. 어느 예나 자음 어간 앞에서는 원래의 받침이 유지되고, 모음 어미 혹은 조음소를 요구하는 어미 앞에서는 ‘ㄷ’이 ‘ㄱ’로 바뀐다. (10가-다)는 (8가-다)에 보인 ‘ㄱ’탈락의 조건에다가, ‘ㄷ’ 불규칙 활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ㄱ’어간을 적용시켜 본 것이다. (10가-다)는 모든 활용형에서 ‘ㄱ’이 탈락하지 않고 있음을 보인다. 단지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10나)의 ‘\*걸으는다/\*걸는다’와 같은 예이다. 이는 ‘걷는다’와 같은 형식이 쓰이는 것이므로, ‘\*걸-’이라는 활용형의 상정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11) ‘ㄱ’탈락을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하는 것의 부당성

‘ㄱ’탈락을 불규칙 활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온당한 것이 아니다. 모든 용언의 ‘ㄱ’받침이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동사 일반이 보이는 특성과 다른 것이기 때문이며, 용언의 모든 ‘ㄱ’받침이 주어진 조건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최현배(1937=1959)의 불규칙 활용과 1985년 학교 문법의 불규칙 활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최현배(1937)에서 불규칙 활용이었던 ‘ㄱ’불규칙, ‘ㅇ’불규칙이 1985년에는 규칙 활용으로 되었으나, 이는 온당한 처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불규칙 활용은 다른 용언의 활용과의 대비를 통하여 성립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자동적 교체나 비자동적 교체는 다른 현상을 고려해 놓지 않는 것이다. ‘ㄱ’불규칙을 1985년 학교 문법에서는 ‘ㄱ’탈락과 같은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어간말에 ‘ㄱ’을 가진 모든 용언이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고 하여 그것이 곧 규칙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용언이나 다른 환경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른 용언이나 다른 환경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면 규칙적인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불규칙적인 것이다.

### 3. '이다' 活用的 不規則性

#### 3.1. '이다'의 품사와 活用

'이다'는 최현배(1937=1959) 문법에서는 "잡음씨(지정사)"로 용언의 하나이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이다. 학교 문법에서 '이다' 活用的 특이성이 주목되기는 어렵다.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고 하고 그것이 불규칙 活用을 한다고 인정하자마자, 그것은 '조사'가 活用을 한다는 이상한 문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학교 문법에서 '이다'의 活用은 전혀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주목할 수도 없었다. 최현배(1937=1959)에서는 '이다'의 活用을 동사나 형용사의 活用과 분리하여 그것이 동사의 活用과 어떻게 다르고 또 때로 형용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다'의 活用에는 불규칙 活用이라는 것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다'는 분명히 용언이며, 그것도 그 活用이 다른 어떠한 용언에서 보는 바와는 다른 매우 특이한 불규칙 活用을 하는 형용사이다.

#### 3.2. '이다'어간의 이형태와 연결 어미 '-라'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12) 가. 그가 진실한 사람이라/사람이라서 우리는 그를 믿었다.
- 나. 그가 ??집주인이어/집주인이어서 우리는 그를 믿었다.
- 다. 그가 밥을 먹어/먹어서 우리만 따로 점심을 시켰다.

(12가)의 밑줄 친 '이라'와 '이라서'는 '이다'의 어간 '이-'에 어미 '-라' 혹은 '-라서'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어미 '\*일-'에 어미 '-아/어' 또는 '-아/어서'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 (13) 어미의 불규칙성인가 어간의 불규칙성인가
- 가. 이-( '이다'의 어간)+-라/러(어미)+서(보조사)→이라서
- 나. \*일-( '이다'의 어간 '이-'의 이형태)+-아/어(어미)+서(보조사)→일아서→이라서

(13가)는 '이다'의 어간을 '이-'로 고정시키고 '-아/어(서)'에 해당하는 어미가 '-라/러(서)'로 교체되는 과정을 상정한 것이고, (13나)는 '이다'의 어미를 일반적인 어미 '-아/어(서)'로 고정시키고 '이다'의 어간을 '\*일-'로 상정한 것이다. (13가)와 같이 상정하면 어미의 불규칙성이 발생하고, (13나)와 같이 상정하면 어간의 불규칙성이 발생한다. '이다'의 '아/어(서)'에 해당하는 活用이 '이라서'와 같이 되는 것을 (13가)와 같이 어미의 불규칙성으로 이해하는 것과 (13나)와 같이 어간의 불규칙성으로 이해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서는가?

한국어 문법에서는 이를 어미의 불규칙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3가)보다는 (13나)의 방법이 부담이 적다. (13가)에서는 '-아/어(서)'에 해당하는 어미가 '-라/러(서)'와 같이 특이하게 변한다고 해야 한다. '-라/러(서)'와 '-아/어(서)'의 기능이 왜 같은가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할 방법이 없다. 그것은 단지 우연이라고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13나)의 방법에 의하면 '-라/러(서)'가 '르'를 가진 '-아/어(서)'이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형태소라는 사실을 해명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른 하나의 이점은 다른 活用형에서도 '르'를 앞에 가진 어미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출현을 설명하는 데도 (13나)와 같이 어간의 불규칙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13가)에 의하면,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각각을 모두 특이한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다'어간의 이형태의 하나는 '\*일-'로 설정하면 일일이 특이한 형태를 상정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다'어간의 이형태 '\*일-'을 상정하는 것이 그만큼 설명력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 (14) '이다'어간의 이형태 '\*일-'
- '-라/러(서)'와 관련된 '이다'어간의 이형태를 '\*일-'로 상정하여 어간의 불규칙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미의 불규칙성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설명력이 크다.

여기서 어간의 불규칙성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지정 형용사 '이다'의 어간이 '이-'와 '\*일-'로 교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15) 가. 바보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 밥이라도 좀 먹지 그래.  
 다. 바보이어도(여도)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 그가 바보라도, (그는 )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마. 바보이었어도(였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15가, 나)의 ‘(이)라도’는 한국어 사전에서 보조사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의미나 기능이 (15다)의 ‘이어도(여도)’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15라)와 같은 구성에서는 ‘(이)라도’가 어미로 되어 있다. 그러나 (15가)는 (15라)에서 내포절의 주어와 모문의 주어가 나타나지 않은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어도(여도)’는 (15마)의 ‘-이었어도(였어도)’와 같이 과거 형태로 쓰일 수 있다. ‘(이)라도’와 달리 ‘이어도’는 절대로 보조사로 보지 않는 이유의 하나가 되고 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숨어 있는 주어를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이)라도’는 분명히 어미 관련 형식이라 할 것이다. 그것을 보조사로 인식하는 것은 재구조화에 의한 것일 뿐이다. ‘(이)라도’를 왜 보조사로 보려고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이다’의 어간을 ‘\*일-’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다’의 어간의 하나를 ‘\*일-’로 상정할 때, ‘이라도’는 ‘어간 \*일-’에 어미 ‘-아/어도’가 연결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 (16) ‘이라도’의 분석  
 가. 이-(‘이다’의 어간)+-라/러(어미)+도(보조사)→이라도  
 나. \*일-(‘이다’의 어간 ‘이-’의 이형태)+-아/어(어미)+도(보조사)→일아도→이라도

(16가)는 어간을 ‘이-’로, 어미를 ‘-라/러도’와 같이 보는 것이다. 이는 ‘(이)라도’에 대하여 어미의 불규칙성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16나)는 ‘이다’의 어간의 이형태의 하나를 ‘\*일-’과 같이 상정하는 것이다. ‘이라도’를 보조사로 인식하는 것은 다시 재구조화에 의한 것이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17) 가. 뉘란 그런 말을 하겠느냐?  
 나. 뉘라서 겨울더러 추웁다더냐?  
 다. 뉘시라 그런 말을 하겠느냐?  
 라. 아버님이시라 그런 생각을 하신다.  
 마. 동생이라 그런 생각을 한다.  
 바. 그것이 뉘라서 겨울더러 추웁다더냐?  
 사. 누구라고 그런 말을 하겠느냐?

(17나)의 ‘라서’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은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예스러운 표현으로) 특별히 가리켜 강조하며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감히, 능히’의 뜻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17가)는 ‘라서’뿐만 아니라 ‘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임을 보인다. (17다)는 ‘라’앞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일 수도 있음을 보인다. 서술성이 커지는 느낌을 받는다. (17라)는 ‘-시라’가 ‘아버님’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주어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서술성이 커진다. (17마)는 ‘동생’에 대해서도 쓰임을 보인 것이다. (17나)는 (17바)와 같은 구조에서 내포절의 주어 ‘그것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7사)의 ‘라고’도 거의 유사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라고’를 주격 조사라고 한 일은 없다. ‘라, 라서’는 원래 보조사가 아니라 어미 형식이라 할 수 있다.

- (18) ‘이라서’의 분석  
 가. 이-(‘이다’의 어간)+-라/러(어미)+서(보조사)→이라서  
 나. \*일-(‘이다’의 어간 ‘이-’의 이형태)+-아/어(어미)+서(보조사)→일아서→이라서

(18가)는 (16가)와 마찬가지로 어간을 ‘이-’로, 어미를 ‘-라/러서’와 같이 보는 것이다. 이는 ‘(이)라서’를 어미의 불규칙성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18나)는 ‘이다’의 어간 이형태의 하나를 ‘\*일-’과 같이 상정하는 것이다. 특정한 ‘이라서’를 주격 조사와 같이 인식하는 것은 이에 재구조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분석자의 직관을 적용하는 것이지 형태소의 본래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라야’에 대해서도 보조사와 연결 어미의 두 가지를 상정하나 이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 (19) 가. 청년**이라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 나. 지원한 사람이 청년**이라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19가)의 밑줄 친 부분은 보조사라고 하는 것이나, (19나)의 밑줄 친 부분과 그 기능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18가, 나)와 평행적인 분석을 제시할 수 있다.

(20) '이라야'의 분석

- 가. 이-( '이다'의 어간)+-라/러(어미)+야(보조사)→이라야
- 나. \*일-( '이다'의 어간 '이-'의 이형태)+-아/어(어미)+야(보조사)→일야야→이라야
- 다. \*일-( '이다'의 어간 '이-'의 이형태) + -아/어(어미) + 야(보조사) + 만(보조사)→일야야만→이라야만

(19가)는 (16가), (18가)와 마찬가지로 어간을 '이-'로, 어미를 '-라/러야'와 같이 보는 것이다. 이는 '(이)라야'를 어미의 불규칙성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19나)는 '이다'의 어간 이형태의 하나를 '\*일-'과 같이 상정하는 것이다. 특정한 '이라야'를 보조사와 같이 인식하는 것은 이에 재구조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분석자의 직관을 적용하는 것이지 형태소의 본래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 (19다)는 '\*일-'을 '이다'어간의 이형태로 가정하여 '이라야만'의 분석을 보인 것이다.

### 3.3. '이다'어간의 이형태와 종결 어미

(21가, 나)는 중세어적인 예로 의고체의 어미들을 가진 예이지만, 현대에서도 드물지만 논년층에서 실제로 쓰이는 예들이라 할 수 있다.

- (21) 가. 사람이 오늘 우리 집에 오**느니라**.
- 나. 그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니라**.
- 다. 그가 너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리랴**.

(21가-마)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 (22) 가. -느(실현성의 선어말 어미)-+-ㄴ(소여의 동명사 어미)#이(지정 형용사 어간)-+-라(종결 어미)
- 나. -ㄴ(소여의 동명사 어미)#이(지정 형용사 어간)-+-라(종결 어미)
- 다. -ㄴ(비소여의 동명사 어미)#이(지정 형용사 어간)-+-라(종결 어미)

(21가, 나)의 밑줄 친 부분을 '-니라'를 하나의 어미로 분석하는 일도 있고, '-니-'와 '-라'를 따로 분석하기도 하고, 심지어 '-느니라' 전체를 하나의 어미로 취급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그 원초적인 분석은 '-느니라, -니라, -리랴' 등을 (22가-다)와 같이 동명사 어미 뒤에 '이다'가 연결된 구성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2가, 나)에서는 '-ㄴ'을 소여(所興)의 동명사 어미(즉 주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동명사 어미)로 분석한 것이 특이하고, (22다)에서는 '-ㄴ'을 비소여(非所興)의 동명사 어미(즉 주어지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명사 어미)로 분석한 것이 특이하다. 의미 기능상으로 (22가)에서는 '-ㄴ'앞에 '-느-'가 있으므로, 그것이 동사의 행동적 속성이 실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뒤에 오는 '-ㄴ'은 동사의 행동적 속성이 실현되는 것이 그대로 실현됨을 나타내게 된다. 통사적으로 '-ㄴ'은 동명사 어미로 명사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라'의 '이-'에 대한 지정 형용사 분석은 지지될 수 있다. '-라'는 다른 용언 어간 뒤에서는 '-다'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다'의 '이-'뒤에서는 불규칙하게 '-라'로 나타난다는 것이 된다. 우선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 (23) '-라'종결 어미의 불규칙성 (곧 수정됨)
- 지정 형용사 '이-'뒤에서 종결 어미 '-다'는 '-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이라서, 이라도, 이라야' 등에서 지정 형용사 '이다'의 어간 이형태로 '\*일-'을 상정하는 것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22가-다)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교체를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보기로 하자.

- (24) 가. 이-(‘ 이다’ 의 어간)+-다 → 이다  
 나. \*일-(‘ 이다’ 어간의 이형태)+-다 → 이라

(24가)는 ‘ 이다’ 의 어간 ‘ 이-’ 뒤에 어미 ‘ -다’ 가 올 때 ‘ 이다’ 가 되는 것을 보인 것이다. 현대적인 활용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20세기 초까지도 ‘ 이다’ 와 같은 형식이 나타나는 것은 ‘ 이다’ 와 같은 예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예의 ‘ 이다(<이다[ɰ ida])’ 는 하계체의 종결 어미이다. 현대 이전에는 (24나)와 같은 ‘ 이라’ 형이 지배적으로 쓰이었다.

‘ 이다’ 의 어간에 ‘ -다’ 가 올 때에는 ‘ 이다’ 가 되는 것이므로, ‘ 이다’ 를 ‘ 이라’ 로 만드는 것은 어간의 이형태 ‘ \*일-’ 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러나 음운 규칙으로는 (24나)가 지지되지 않는다. ‘ ㄹ’ 받침을 가진 용언이 ‘ ㄷ’ 자음 앞에서 변하는 양상이 (24나)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25) 가. 바다에는 파도가 일도다/이도다.  
 나. 행렬이 상당히 길도다/기도다

(25가)는 ‘ 일다[起]’ 의 어간 ‘ 일-’ 의 ‘ ㄹ’ 받침이 ‘ -도다’ 앞에서 유지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음을 보인 것이다. 이는 (25나)에서도 같다. ‘ 길다[長]’ 의 어간 ‘ 길-’ 의 받침 ‘ ㄹ’ 이 ‘ -도다’ 앞에서 유지될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다. (24나)가 보이는 현상은 (25가, 나)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렇다면 (24나)를 버려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24나)는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다. 다른 음운 현상에서는 (24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24나)는 불규칙적인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있다. 어간 ‘ 이-’ 가 ‘ \*일-’ 로 교체하는 것이 불규칙하고, 받침 ‘ ㄹ’ 이 어미 ‘ -다’ 를 ‘ -라’ 로 바꾼 뒤에 탈락하는 것이 불규칙하다. 어간과 어미의 교체가 모두 불규칙하다. 이제 (23)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 (26) 어간 ‘ 일-’ 과 어미 ‘ -라’ 의 불규칙성

지정 형용사 ‘ 이-’ 뒤에서 종결 어미 ‘ -다’ 가 ‘ -라’ 로 바뀌는 것은, ‘ 이다’ 의 어간을 ‘ \*일-’ 로 상정할 것을 요구한다. ‘ \*일-’ 뒤에서 어미 ‘ -다’ 가 ‘ -라’ 로 바뀌는 것은 어간과 어미의 불규칙성이라 할 수 있다.

‘ 이다’ 의 어간 ‘ 이-’ 에 어미 ‘ -다’ 가 연결되면, ‘ 이다’ 가 되는 것이므로, ‘ 이라’ 의 생성을 위해서는 어간을 ‘ \*일-’ 로 상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일-’ 의 받침 ‘ ㄹ’ 이 ‘ -다’ 의 ‘ ㄷ’ 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행 ‘ ㄹ’ 이 후행 ‘ ㄷ’ 을 ‘ ㄹ’ 로 바꾸고 동화주는 스스로 탈락하는 것과 같은 변화는 다른 음운 환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어휘적으로 조건된 불규칙성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혹 이를 어미의 불규칙성으로만 보면 불규칙성의 양이 줄어들 것이라고 할지 모른다. ‘ 이다’ 의 어간에 ‘ -다’ 가 연결되면, 한번은 ‘ 이다’ 가 되고, 또 다른 한번은 ‘ 이라’ 가 되는 것과 같이 기술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우연적인 불규칙성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이다’ 의 내포절 종결 어미는 현대에도 어느 경우에도 ‘ 이라’ 로 나타난다. 이는 역사적으로 ‘ 이라’ 가 ‘ 이다’ 에 선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 (27) 가. 철수가 영희가 동생이라고 말하였다.  
 나. \*철수가 영희가 동생이라고 말하였다.  
 (28) 가. 철수가 “ 영희가 동생이다.” 라고 말하였다.  
 나. 철수가 “ 영희가 동생이다.” 하고 말하였다.

(27가)는 흔히 간접 인용 구성이라 하는 것이며, (28가, 나)는 직접 인용 구성이라 하는 것이다. (28가, 나)의 직접 인용 속에 주어진 문장은 ‘ -다’ 어미를 가지고 있으나, 그에 해당하는 (27가)의 간접 인용문은 (27가)에서와 같이 어미 ‘ -라’ 를 가지고 있다. (27나)는 완전한 비문이다. 근절보다는 내포절 속에 언어의 과거의 모습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27가)는 ‘ 이다’ 종결형의 예전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문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 3.4. ‘ 이다’ 어간의 이형태와 ‘ 로, 러, 어’ 를 가진 어미

‘ -구나’ 와 같이 어미에 ‘ -구-’ 를 가진 감탄 어미는 ‘ -로구나’ 와 같이 ‘ -로-’ 와 함께



쓰이는 일이 있다.

- (29) 가. 이것이 (ㄱ)책이구나/(ㄴ)책이로구나  
 나. 이것이 (ㄱ)책이구먼/(ㄴ)책이로구먼.  
 다. 이것이 (ㄱ)책이군/(ㄴ)책이로군.  
 라. 이것이 (ㄱ) 책이군요/(ㄴ)책이로군요

(29가-라)는 어미에 ‘구’를 가진 ‘이다’의 활용형을 보인 것이다. (ㄱ)은 어간 ‘이-’에 ‘-구나, -구먼, -군, -군요’ 등이 연결됨을 보이는 데 대하여, (ㄴ)은 ‘이-’에 ‘-로구나, --로구먼, -로군, -로군요’ 등과 같이 ‘로’를 가진 형식이 연결됨을 보여 준다. ‘-구나, -구먼, -군, -군요’ 등을 일반적인 감탄 어미이라고 한다면, ‘-로구나, --로구먼, -로군, -로군요’ 등은 일반적인 감탄 어미라고 할 수 없다. ‘-구나, -구먼, -군, -군요’ 등이 규칙적인 것이므로, ‘-로구나, --로구먼, -로군, -로군요’ 등과 같이 ‘로’를 가진 어미는 불규칙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로’계 어미는 어간 ‘이-’ 뒤에만 나타난다. ‘이다’의 어간 ‘이-’ 뒤에만 ‘로’가 쓰인다는 것은 어간 ‘이-’와 ‘로’의 관계가 ‘로’와 그 뒤에 오는 규칙적 어미와의 관계보다 더 밀접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로’를 어간의 일부라고 하여 보자. 그렇 경우, ‘이다’의 어간 ‘이-’는 ‘구’로 시작되는 감탄 어미 앞에서 ‘이로-’로 교체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정 형용사 ‘이다’에서 어간 ‘이-’가 ‘이로-’와 교체하는 것과 같은 일이 다른 용언에서 나타나는 일은 없으므로, 어간이 ‘이-’와 ‘이로-’로 교체하는 것은 불규칙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하자.

(30) ‘이다’의 어미의 교체와 어간의 교체

- 가. 어간 ‘이-’에, ‘구’를 가진 감탄 어미가 연결될 때 ‘-로구나’ 등과 같이 ‘로’를 가지는 어미가 쓰일 수 있는 것은 불규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나. 어간 ‘이-’에, ‘구’를 가진 감탄 어미가 연결될 때 어간 ‘이-’가 ‘이로-’와 교체하는 것은 불규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0가)는 어미를 불규칙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30나)는 어간을 불규칙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30가)이다. 어미를 불규칙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어간을 불규칙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어간을 불규칙한 것으로 보는 것이 기술의 부담이 더는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미는 가능한 한, 일반적인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다’의 어간 ‘이-’가 ‘이로-’와 교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결 어미 ‘이라서, 이라도, 이라야’ 및 종결 어미 ‘이라’ 등의 분석에서 추출되는 어간 ‘일\*-’을 ‘이로-’형에 적용하면 ‘이로-’는 ‘\*일-’과 ‘-오-’로 분석된다. ‘\*일-’을 어간으로 하는 ‘이로구나’의 가능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자.

- (31) 가. \*일-(‘이-’의 이형태)+-오구나(감탄 어미)  
 나. \*일-(‘이-’의 이형태)+-오-(조음소?)+-구나(감탄 어미)  
 다. \*이로-(‘이-’의 이형태?)+-구나(감탄 어미)

(31가)는 ‘이다’어간의 이형태를 ‘일-’로, 감탄 어미를 ‘-오구나’로 상정한 것이다. 이는 ‘-구나’의 이형태로 ‘-오구나’를 상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구나’형이 다른 예에 쓰이는 일이 없으므로, 선택하기 어렵다. (31나)는 ‘-오-’를 조음소적인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 (32) 가. 네 콩 숭기 아디 못ㅎ는 듯ㅎ고나 <번역노결대 상 19b-20a>  
 나. 네 독벼리 모르느고나 <번역노결대 상 27a>

(32가, 나)의 어미 ‘-고나’는 현대의 ‘-구나’에 해당하는 어미이다. (32가)의 ‘ㅎ고나’의 ‘ㅎ’는 ‘-오-’를 가지지 않은 형태이며, (32나)의 ‘모르느고나’의 ‘느’도 ‘-오-’를 가지지 않은 형태이다.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우-’가 쓰였다면, ‘\*듯ㅎ고나, \*모르느고나’와 같은 모양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세어 자료에서 이러한 예는 찾기 어렵다. ‘구’계 감탄 어미와 ‘-오/우-’는 같이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감탄 어미와 같이 나타나는 ‘로’는 아래의 (33가, 나)에 나타나는 ‘이로라’에 대한 유추일 수도 있고, (33다, 라)에 나

타나는 ‘이로다’에 대한 유추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로’의 ‘ㄹ’은 어간의 이형태인 ‘\*일-’의 받침 ‘ㄹ’에서 온 것이며, ‘오’는 유추에 의하여 생겨난 조음소적인 요소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른 예에서 같은 현상이나 형태를 찾기 어렵다. 모두 ‘이다’ 활용의 불규칙성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3) 가. 그는 우리 동네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이다.

나. \*일-(‘이-’의 이형태)+-오-(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라(종결 어미)→일오라→이로라

다.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라. \*일-(‘이다’ 어간의 이형태)+-도-(감탄 선어말 어미)+-다(종결 어미)→이로다

(33가)의 밑줄 친 ‘-로-’는, (33나)에 보인 바와 같이, 어간 ‘이-’의 이형태 ‘\*일-’에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가 오고 그 뒤에 다시 종결 어미 ‘-라’가 온 것이다. ‘\*일오라’가 연결 또는 연음되어 ‘이로라’가 된 것이다. ‘-로라’에도 어느 정도 감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계 감탄 어미에도 영향을 미쳐 ‘\*일+구나’가 ‘이로구나’와 같이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33다)는 (33라)와 같이 감탄 선어말 어미 ‘-도-’가 ‘-로-’로 바뀐 것을 보인다. ‘이다’ 어간의 이형태 ‘\*일-’의 받침 ‘ㄹ’이 ‘-도-’의 두음을 ‘ㄹ’로 바꾸고 스스로는 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또한 ‘이다’ 활용의 불규칙성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34) ‘이다’의 이형태와 ‘ㄷ→ㄹ’ 변화

‘이다’ 어간의 이형태 ‘\*일-’의 받침 ‘ㄹ’은 후행하는 자음 ‘ㄷ’을 ‘ㄹ’로 바꾸고 스스로는 탈락하는 일이 있다. 이 또한 ‘이다’ 활용의 불규칙성이다.

(34)와 같은 변화는 ‘-더-’에서도 발견된다.

(35) 가. 그가 젊은이들의 우상이더라.

나. 그가 젊은이들의 우상이러라.

다. \*일-+-더-(회상[단절]의 양태 선어말 어미)+-다(종결 어미)→이러라

‘이다’ 뒤에서는 (34가)와 같이 회상[단절]의 선어말 어미 ‘-더-’가 (34나)와 같이 ‘-러-’가 되는 일이 있다. 중세에는 왕성하게 쓰이던 형태였으나, 현대에는 문어에 간혹 나타나는 일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다’ 어간의 이형태를 ‘\*일-’로 가정하면 (35다)와 같이 볼 수 있다. (34)에 의하여 ‘이다’ 어간의 이형태 ‘\*일-’의 받침 ‘ㄹ’이 ‘-더-’의 ‘ㄷ’을 ‘ㄹ’로 바꾸고 스스로는 탈락한 것으로 본다. ‘-러니, -런, -런들’ 등에 나타나는 ‘-러-’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로-’가 나타나는 다른 예를 보기로 하자.

(36) 가. 나는 왕이로소이다.

나. \*나는 왕이소이다.

다. \*일-(‘이-’의 이형태)+-오-(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소-(<-사오-<-스브-)+-이-+-다

라. 四夷를 撫코자 訖시노소이다 <孟子諺解 1:29a>

(36가)의 밑줄 친 부분은 (36다)와 같이 분석된다. ‘이로-’는 ‘이-’의 이형태 ‘\*일-’에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우-’가 연결된 것이고, ‘-소-’는 화자 겸양의 형태와 조음소가 결합한 ‘-습-+으’의 후대형인 ‘-사오-’의 축약형이다. ‘-소이다’의 ‘-이-’는 ‘하오’체의 청자 높임 선어말 어미이며, ‘-다’는 종결 어미이다. 그런데, ‘-소이다’ 앞에는 (36라)의 ‘-노-’에 보이는 바와 같이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우-’가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분명히 ‘이로-’가 ‘\*일-’ 어간에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우-’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37) ‘이로소이다’에서 ‘이-’의 이형태 ‘\*일-’

‘이로소이다’의 ‘로’는 ‘이-’의 이형태 ‘\*일-’의 받침 ‘ㄹ’과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한 것이다.

'-소이다'가 '이다'의 어간에 연결될 때에는 반드시 '로'를 수반해야 한다. (36나)는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여 비문이 된 것이다.

(38) 가. 이것이 책이로세.

나. 이것이 책일세.

다. \*일-( '이-'의 이형태)+-오-(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쇠/세(<사오이)

(38가)의 밑줄 친 '이로세'는 (38다)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쇠'는 '-소이'의 축약형이고, '-세'는 다시 '쇠'의 축약형이라 할 수 있다. (38가)에서 '이로-'가 '일-'로 축약된 것이 (38나)의 '-일세'인이다.

(39) 가. 이것이 책이올소이다.

나. \*일-+-오-(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이로[iro]-→이올[ior]-

(39가)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올'이 특이하다. '올'은 '-로'와 관련되는 형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왜 '올'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39나)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39나)의 '\*일-'은 위의 (14)에 보인 바와 같은 '이다'어간의 이형태이다. 그 이형태 '\*일-'에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가 연결된 뒤에 'ㄹ'받침이 연결 또는 연음되어 '이로-'가 된 뒤에 다시 '로[ro]'가 음운 도치(音韻倒置, metathesis)에 의하여 '올[or]'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40) 가. 이것이 책이올시다.

나. 이-+-올(←로)+-소이다→??이올쇠다→??이올센다→이올시다

다. 이것이 책이올습니다.

라. 이-+-올(←로)+-스-(←사오-←스븐-)(화자 겸양)+-ㅂ-(화자 겸양)+-ㄴ(현재 시제)-+-이-(칭자 높임)+-다→이올습니다

(40가)의 '이올시다'는 (40나)와 같이 '이올소이다'에서 '소이'가 축약되어 '-쇠'가 되고 그것이 다시 '-세'가 되고 그것이 또 다시 '-시'로 변환된 것이다. (40다)와 같은 '이올습니다'에 대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올시다'의 잘못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올시다'는 '하십시오(합쇼)'체가 아니다. '-올습니다'를 잘못이라 한다면, 이러한 형식으로는 '하십시오(합쇼)'체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40라)에 보인 바와 같이, '이로-'뒤에 '스븐'의 후대형인 '사오'가 변환 '스'뒤에 다시 화자 겸양의 'ㅂ'이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41) 가. 그것이 수표이거든 받아 두어라.

나. 그것이 수표이어든 받아 두어라.

다. 이[iy]-+-거든→이어든

라. \*일-+-거든(어미)→이어든

(41가)의 '이거든'은 (41나)와 같이 '이어든'으로 교체된다. '-거늘, -거니, -건마는, -건만' 등과 같이 앞에 '거'를 가지는 어말 어미들이 동일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41나)의 '-어든'과 같은 형태를 'ㄱ'탈락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중세어에서는 'ㄱ'탈락형이 일반적이었다. 현대에 (41가)가 일반화된 것은 '이다'가 점차 규칙 동사화하면서 탈락형이 세력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세어에서는 'ㄷ외어늘'과 같이 어간이 'ㅣ'계 이중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ㄱ'탈락이 일어났다. 동일한 현상이 '이다'의 어간 뒤에서도 일어났으므로, '이다'의 어간을 /iy/로 상정하여 'ㄱ'탈락에 접근하기도 하였다(이기문 1972a, 1972b). 그러나 '이다'의 '이'를 /iy/로 보는 것은 'ㄱ'탈락만을 위한 임의적인 처리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이다'의 어간을 '\*일-'로 가정하면, 'ㄱ'탈락은 'ㄹ'이래에서 'ㄱ'의 탈락이라는 일반적인 현상의 하나가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다'의 어간 이형태의 하나를 '\*일-'로 가정하는 것은 상당한 지지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42) '이다'의 어간 이형태와 'ㄱ'탈락

'-거늘, -거니, -거든, -건마는, -건만' 등의 어미는 '이다'의 어간 '이-'뒤에서

‘ㄱ’이 탈락한다. 이는 ‘이다’ 어간의 이형태를 ‘\*일-’로 가정하면 일반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이다’의 어간이 ‘\*일-’이 되는 것, ‘거-’계의 어미에서 ‘ㄱ’이 탈락하는 것은 불규칙적인 것이다.

이 밖에도 ‘이다’에만 연결되는 특이한 어미로는 ‘-관대/완대’와 같은 어미가 있고, ‘이다’에 대해서만 특이한 의미를 가지는 어미에 ‘-자’가 있다.

- (43) 가. 너는 무엇이관대/무엇이완대 놀기만 하느냐?  
나. 그는 시인이자 교수이다.  
다. 그는 시인이면서 교수이다.

- (44) 가. 까마귀 날자 새 떨어진다.  
나. \*셀로판지가 투명하자 깨끗하다.

(43가)의 ‘-완대’는 ‘\*일-’어간 뒤에서 ‘-관대’의 ‘ㄱ’이 탈락함을 보인 것이다. 이는 (42)에 속하는 것이다. (43나)의 ‘-자’는 주어가 ‘시인’임과 동시에 ‘교수’가 되는 겹침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그 의미는 (43다)의 ‘-면서’와 같다. ‘-자’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다’에만 국한된다. (44가)는 동사 ‘날-’에 ‘-자’가 연결된 것이지만, 그 의미는 겹침이 아니라, 연발(連發)이라는 것이다. 앞의 사건이 끝나고 바로 뒤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44나)는 형용사에는 ‘-자’어미가 쓰일 수 없음을 보인다.

#### 4. 결 론

한국 문법에서 ‘이다’는 그 성격이 상당히 왜곡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다’를 지정사로 보는 견해와 동시에 체언의 활용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왔고, 최근의 학교 문법에서는 이를 서술격 조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다’의 활용이라는 것은 문법 체계의 왜곡을 불러오지 않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의 성격을 띤다.

불규칙 활용의 성격이 왜곡되어 온 측면도 있다. 불규칙 활용을 비자동적 교체와 동일시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불규칙 활용은 규칙 활용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자동적 교체는 다른 교체를 고려에 넣지 않고도 성립하는 개념이다. ‘ㄱ’ 불규칙 활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ㄱ’ 불규칙을 ‘ㄱ’ 탈락으로 세우고 있으나 문제는 ‘ㄱ’ 탈락이 규칙적인가 불규칙적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활용에서 받침이 탈락하는 것이 규칙적인 것이 아니므로, ‘ㄱ’ 탈락은 불규칙 활용으로 보아야 한다.

‘이다’의 활용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다른 용언의 활용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 형태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 형태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어(서), -아/어야, -아/어도’ 등과 같은 어미가 ‘-라서, -라야, -라도’와 같이도 변하는 것은 ‘이다’어간의 이형태를 ‘\*일-’로 가정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확실성의 양태 선어말 어미 ‘-오/우-’가 ‘-로’로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어미가 ‘-라’로 바뀌는 것, ‘-도다’의 ‘-도-’가 ‘-로-’로도 바뀌는 것, ‘-더-’선어말 어미가 ‘-러’로 바뀌는 것은 ‘\*일-’의 받침 ‘ㄱ’이 ‘ㄷ’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어미에서도 일어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이러한 변화를 불규칙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로구나’와 같이 ‘구’계 어미 앞에서는 ‘로’가 나타나기도 하는 특이성을 가진다. 이는 ‘이다’어간의 이형태를 ‘\*일-’로 가정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조음소적인 ‘오’를 가정해야 하는데, ‘-로라’와 같은 형태에 대한 유추가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거든’과 같이 ‘-거-’를 가진 형태들이 의고적인 ‘이어든’과 같은 형태로 바뀌게도 되는 것은 ‘이다’의 어간을 ‘\*일-’로 가정하면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다’의 어간 이형태를 ‘\*일-’로 가정하는 것, 어미 형태가 달라지는 것, 그 의미가 특이하게 되는 것은 ‘이다’활용의 불규칙성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 主要 參考文獻

- 김민수 (1994), “ ‘ 이다’ 처리의 논쟁사,” 주시경학보 13, 탑출판사, 3-13.
- 김의수 (2000), “ ‘ 이다’ 논의 재검토,” 솔미정광교수 회갑기념논문집, 월인, 661-690.
- 김정대 (2005), “ 계사 | ‘ 이-’ 의 기원형 ‘ \*일-’ 을 찾아서,” 우리말글 35, 1-41.
- 김정아 (2001), “ ‘ 이-’ 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통시적 고찰,” 국어학 37, 국어학회, 309-336.
- 김주원 (1994), “ 알타이 제어의 계사,” 주시경학보 13, 탑출판사, 102-115.
- 김창섭 (1996), 국어의 단어 형상과 단어 구조 연구, 태학사.
- 남기심·고영근 (1991),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남기심 (1986), “ ‘ 이다’ 구문의 통사적 분석,” 한불연구 7. 연세대 한불연구소. 남기심 (1996), 재록, 36-51.
- 남기심 (1996), 국어 文法の 탐구 I: 국어 통사론의 문제, 태학사.
- 남길임 (2004), 현대국어 ‘ 이다’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박재연 (2005), “ 한국어 계사문의 한 유형,” 한국언어학회 겨울학술발표대회 발표 요지.
- 배주채 (2000), “ ‘ 있다’ 와 ‘ 계시다’ 의 품사에 대한 사전 기술,” 성심어문논집 22, 가톨릭대 국문과.
- 배주채 (2001), “ 지정사 활용의 형태음운론,” 국어학 37, 국어학회, 33-59.
- 서병국 (1967), “ 수관형사와 ‘ 이다’ 의 품사 처리에 대한 이견,” 국어국문학 34·35, 250-254.
- 서병국 (1971), “ 학교 문법의 문제점 분석 연구 (2),” 국어교육연구 2:3, 경북대사대 국어교육연구회. 서병국 (1977) 재록, 101-177.
- 서병국 (1977:재판), 국어문법론고, 학문사.
- 서태룡 (1994), “ 최현배의 품사 분류,” 주시경학보 14, 보고서, 3-14.
- 시정곤 (1993), “ ‘ 이다’ 의 ‘ -이’ 가 접사인 몇 가지 이유,” 주시경학보 11, 탑출판사, 143-149.
- 안명철 (1995), “ ‘ 이’ 의 文法적 성격 재고찰,” 국어학 25, 국어학회, 29-49.
- 양정석 (1995),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 이론, 도서출판 박이정.
- 양정석 (1996a), “ ‘ 이다’ 구문과 재구조화,” 한글 232, 한글학회, 99-122.
- 양정석 (1996b), “ ‘ 이다’ 구문의 의미 해석,” 동방학지 91,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99-134.
- 양정석 (2003), “ ‘ 이-’ 주격 조사설에 대한 반론,” 형태론 5:1, 박이정, 99-110.
- 엄정호 (1989), “ 소위 지정사 구문의 통사 구조,” 국어학 18, 국어학회, 337-366.
- 엄정호 (2000), “ ‘ -이다’ 의 ‘ 이’ 는 조사인가,” 형태론 2:2, 박이정, 333-343.
- 유동석 (1987=1999), “ 국어 계사의 형태 교체에 대하여,” 문법 2, 태학사, 121-134.
- 이광정 (1994), “ ‘ 이다’ 연구의 사적 고찰,” 주시경학보 13, 탑출판사, 45-62.
- 이기문 (1972a),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기문 (1972b), 국어음운사연구, 한국문화연구소.
- 이길록 (1969), “ 체언의 용언적 기능에 대하여: ‘ 이다’ 의 형태론적 분석,” 국어교육 15, 24-44.
- 이승녕 (1956), 고등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승재 (1994), “ ‘ 이-’ 의 삭제와 생략,” 주시경학보 13, 14-28.
- 이현희 (1994), “ 계사 ‘ (-)이-’ 에 대한 통시적 고찰,” 주시경학보 13, 탑출판사, 88-101.
- 이희승 (1949), 초급국어문법, 박문출판사.
- 이희승 (1950),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임홍빈 (1993), 뉘앙스 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전, 아카데미하우스.
- 임홍빈 (1997), “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관악어문연구 22, 93-16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임홍빈 (1998), 국어 문법의 심층 1, 2, 3, 태학사.
- 임홍빈 (1999a), “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4, 1-6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임홍빈 (2001), “ 국어 품사 분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국어 연구의 이론과 실제: 이광호교수회갑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태학사, 705-761.
- 임홍빈·이홍식 (2002), 한국어의 구문 분석 방법론, 한국문화사.
- 임홍빈·장소원 (1995), 국어 문법론 1, 한국방송통신대학.
- 최현배 (1930), 조선어의 품사 분류론. [참고] 역대국어문법대계 제1부 제17책.
- 최현배 (1937=1959), 우리말본, 연희전문출판부.
- 최현배 (1956), “ 잡음씨의 세움: 이론적, 사실적 및 비교언어학적 논증,” 한글 120: 21-55.
- 황화상 (2005), “ ‘ 이다 ’ 의 문법 범주 재검토,” 형태론 7:1, 박이정, 135-153.
- Hockett, C.(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초록]

本 發表는 韓國의 學校文法에서 흔히 敍述格 助詞라고 하는 '이다'에 對하여 우선은 그 品詞가 助詞가 아니라 形容詞이며 그 活用이 다른 形容詞나 動詞에서 보이는 不規則 活用に 比較가 되지 않을 만큼 不規則한 것이어서 韓國語에 對한 正確한 敎育을 爲해서는 '이다'와 關聯한 活用을 不規則 活用으로 設定하여 徹底한 敎育의 對象으로 삼아야 할 것이 必要한 것임을 主張하고자 한다.

'이다'의 性格 把握에 對해서는 韓國語 文法에서의 出發이 極히 不幸한 것이었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草創期에는 이른바 '이다' 論爭이라 하여 그 性格 把握에 있어서 極甚한 混線을 빚었다. 한편으로는 그것을 指定詞(잡음씨)라고 하는 崔鉉培(1930, 1937)의 立場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體言의 活用이라 하는 李熙昇(1949, 1950)이 立場이 맞서 지금까지도 公式的으로는 그것을 '敍述格 助詞'로 보는 立場이 學校 文法에서 採擇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다'를 指定詞라 하여 따로 세울 必要도 없는 것이며, 體言의 活用이라는 特異한 範疇를 設定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이다'는 形容詞로 보아 아무런 問題가 없는 것이다. 그 活用の 樣相이 形容詞와 完全히 一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過去에는 그 品詞 問題가 解決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特異한 活用이 미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다'의 活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特異한 것이다.

'이다'가 間接 引用 內包文의 終結 語尾로 쓰일 때는 '이것을 책이라고 말하였다'의 밑줄 친 形態와 같이 '-라'로 變한다. 理由·原因의 語尾 '-아/어서'가 連結될 때에는 '계절이 여름이어서이라서 날씨가 덥다'의 밑줄 친 形態와 같이 '-어/라'가 함께 쓰일 수 있다. 讓步나 反意의 연결 어미 '-아/어도'가 連結될 때에도 '이것이 책이어도/책이라도'의 밑줄 친 形態와 같이 '-어/라'가 함께 쓰일 수 있다. 回想(혹은 斷絶)의 樣態 先語末 語尾 '-더-'가 '이-' 뒤에 연결될 때에는 '그는 나비더라'와 같기도 쓰이지만, 古風스럽게 말할 때에는 '그는 나비려라'와 같기도 쓰일 수 있다. '고이 접어서 나빌레(려)라'와 같이 '일-'形이 直接 쓰이는 일도 있다. 確實性의 선어말 어미 '-오-'와 함께 쓰일 때는 '내로라 하는 사람'의 '-로-'와 같이 '-오-'가 '-로-'가 된다. '나는 왕이로소이다'라고 할 때에도 '-로-'(기원은 다소 다른 것으로 여겨짐)가 나타난다. 감탄의 '이도다'도 '이로다'와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다'는 'ㄱ'으로 시작된 어미의 'ㄱ' 脫落과도 密接한 關聯을 가진다. '이것은 책이고 저것은 나무이다'라고 할 때에는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나무이다'와 같이 '-요'(←'-오'←'-고')가 되기도 한다. 根文의 半말체 終結 語尾가 '이것이 책이야'와 같이 '-야'가 되는 것도 '이다' 活用の 매우 特異한 面이다.

'이다' 活用に 나타나는 이러한 特異性의 一端은 韓國語에서 '이다'의 語源이 '\*일다'였던 데에서 비롯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아서→이로서, \*일아도→이라도, \*일오라→이로라' 등과 같이 '이-'가 '로'形의 語尾를 가지는 것은 '이다'의 語源이 '\*일다'였던 데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면 매우 效果的으로 說明될 수 있다. 그러나 '-다→-라'의 變化나, '-더→-려'의 變化, '-도다→-로다'의 變化에 對해서도 같은 說明이 可能한 것은 아니다. 이에 對해서는 韓國語의 歷史에서 語幹 末音 'ㄹ' 아래에서 後行 形態의 初聲 'ㄷ'이 脫落한 것으로 假定하기로 한다. '\*일다'의 語幹 '\*일-'의 받침 'ㄹ' 뒤에서 '-다'의 'ㄷ'이 脫落한 뒤에 '\*일-'의 'ㄹ' 末音이 다음 音節의 初聲으로 連音, 連綴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ㄹ' 語幹 用言은 'ㄷ'으로 始作하는 語尾 앞에서 'ㄹ'이 脫落하는 것이 一般的이나, '이다'의 境遇는 '일-'의 語幹 末音이 이미 脫落한 뒤이기 때문에, 一般的인 境遇와 달리 後行 語尾 'ㄷ' 頭音에 影響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다'의 連結 語尾 連結形 '이고'의 'ㄱ' 脫落에 對해서는 '이다'의 語源的 形態가 '\*일-'이었다고 假定하면, 중세 韓國語의 모든 'ㄱ' 脫落 現象이 하나의 環境으로 說明될 수 있게 된다.

